

엄마의 역할

(영아기의 애착 행동)

영아(嬰兒)란 통상 생후 1주일부터 1세 반이 될 때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출생 직후 어린 개체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기초적인 방어 본능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부모, 특히 엄마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자신과 외계(外界)와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차츰 엄마 또는 그 대리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신과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어렵풋이나마 깨달아 가는 시기가 바로 사회성을 띤 웃음(Social smile)을 보이기 시작하는 생후 2, 3 개월쯤이다.

6, 7개월쯤 지나면 늘 그를 보살피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엄마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분하고, 타인에게 안겼을 때 울거나 보채는 등의 낯가림을 시작한다. 그는 다시 엄마에게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안심하고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것은 곧 그 어린아이에게 애착(愛着)행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애착(attachment)이란 특정인과의 애정에 찬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린아이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착의 형성은 어린 개체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애착을 가짐으로써 어린 개체는 기본적인 안정감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발달 과제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

어린아이가 생후 8, 9개월쯤 되었을 때는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심할 때 격리 불안(Separation anxiety) 또는 외인 불안(Stranger anxiety)이 생긴다. 엄마가 주위에서 보이지 않으면 울고 찾으며 그와 떨어지지 못 하도록 만든다.

이 시기의 어린 개체는 이런 방식으로 모성과의 단단한 결속을 도모하게 된다. 이것은 엄마와의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언제든지 엄마가 자신을 도와주고 위협으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단단한 신뢰를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어떤 결함, 예컨대 정신병이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모가 이혼을 한다거나 피치 못 할 일이 발생하여 모성 박탈이 생긴 경우 어린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아주 어린 시기에 양육하는 엄마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입양되었다든지 하여 친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 대리인에게서 엄마와 동등한 정도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서 자란 아이에서는 애착 행동이 생긴다. 어린아이가 엄마든 그 외의 누구든 간에 일단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애착이 생기는 것은 다음 단계의 발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할로(Hallow)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격리하여 그 새끼들이 겪는 발달상의 문제점을 연구한 실험으로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새끼 원숭이로부터 80일 이하의 모성 박탈을 한 경우에는 후일 어렵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수준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6개월 이상 격리한 경우 새끼 원숭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발달상과 사회성의 문제점을 보였다고 하였다. 즉 정상적인 사회성의 발달은 부모, 형제간의 접촉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1920년 인도의 미드나포레에서 싱 목사에 의해 발견된 늑대 소녀들의 이야기는 어린 인간 개체가 늑대에 의해 양육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으로 태어난 소녀들이 늑대 엄마에게 애착 행동을 보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까지는 무리가 있겠으나 어쨌든 늑대들에 의해 길러진 어린 자매는 모습만 인간이었을 뿐 늑대 처럼 네 발로 걷고 성대가 허락하는 한 늑대의 울음소리를 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발견된 뒤에는 후견인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돌보았건만 결국은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 하고 죽었다.